



기획시리즈



최 명 섭
입업연구원

댕강나무

과명 : 인동과
학명 : *Abelia mosanensis*
영명 : Mangsan Abelia
한명 : 孟山六條木
일명 : もうざんつくばねうつぎ

댕강나무는 실향민(失鄉民)들의 「망향(望鄉)의 꽃」이다. 이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은 이 나무를 보면, 누구나 두고온 산하를 생각하며 눈물 짓는다. 실향민들이 고향사람을 만난 듯 반갑게 대하는 이 나무는 식물학자 정태현 박사가 일제 때 평남 맹산에서 발견, 학명을 '맹산산'이라 분류하고 가지를 꺾으면 「댕강」하고 부러진다고 하여 댕강나무라는 이름이 붙여 졌다. 댕강나무는 주로 석회암지대에 나며, 줄댕강나무, 털댕강나무, 섬댕강나무 등이 남쪽에 자생하지만 관상가치는 댕강나무와 줄댕강나무가 제일 높다.

유사종으로는 줄댕강나무(*A. taihyoni*), 털댕강나무(*A. coreana*), 경북 울릉도가 특산인 섬댕강나무(*A. insularis*)가 있으며, 최근 계방산에서 발견된 가지에 흑색 선점이 밀포한 것을 계방댕강나무(*A. gyeangensis*)라 하며, 외

국에서 수입되어 식재된 중국산 댕강나무 사이에서 원예종으로 잡종 육성된 중간 잡종으로 1930년 경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반상록성 활엽관목(闊葉灌木)으로 수고 2m 정도 자라고, 밑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 군생하는 꽃댕강나무(*A. grandiflora*)가 중부 이남의 정원에 많이 식재되고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외화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산야에 자생하는 나무를 증식 시키고 보급하여 굳이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일이 없도록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이다.

1. 생태적 특성

평남 맹산과 성천(成川) 지역에 자생하며, 댕강나무속(屬)은 석회암지대의 대표적 식생으로서 건조한 바위 사이에 자라는 낙엽 활엽관목(落葉闊葉灌木)으로 높이가 3~4m 정도 자라며, 밑부분에

서 여러개의 줄기가 올라오며, 줄기에는 여섯 개의 줄이 파져 있어 육조목(六條木)이란 별명도 가지고 있으며, 새로 자란 가지는 붉은 것이 특징이다. 임반이 많은 바위틈이나 골짜기의 많은 햇빛이 쬐이는 지역에 자생하며, 특히



▲댕강나무(홍릉수목원)

댕강나무속이 자라는 곳은 거의 석회암지대이며, 매우 건조한 곳에서도 잘 견디어 낸다. 줄댕강나무는 충북 단양지방에 많이 자생하고 있으나,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고 난 뒤부터 공해로 거의 멸종되고, 일부 지역에서 종족을 이어



▲당강나무 전경



◀당강나무 열매



◀줄당강나무



◀털당강나무

갈 뿐이다.

2 형태적 특성

잎은 마주나며, 긴 달걀형이고, 길이 3~7cm로 매화나무 잎과 유사하며, 가장자리가 매끈하다. 꽃은 5월에 새가지 끝에 수많은 분홍색 봉우리가 생겨 흰색으로 피며, 은은하고 달콤한 향기가 있어서, 멀리까지 적셔준다. 화관은 길이 2.0~2.2cm로 연한 홍색이 돌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9월이 되면 네 개의 날개를 가진

열매가 하늘을 향해 뻗혀, 프로펠라같은 모양을 한다.

3 조경수로써의 활용

5월에 피는 빨간 꽃은 윗부분이 우유빛을 띠고 있어 아름답고, 향기가 달콤하여 정원이나 공원에 군식(群植) 혹은 열식(列植)을 하여도 좋은 관상수이다.

양지나 반그늘의 척박한 땅이나 추위와 맹아력도 강하며, 각종 대기오염에도 잘 견뎌 도심지의 공원, 큰 나무 아래 군식(群植)하거

나, 생울타리용으로도 적당하다.

특히 줄당강나무는 수형이 우산모양으로 옆으로 누워 자라므로 도로변 길 어깨에나 경사면 같은 곳에 식재하기 좋은 나무이다.

4 번식법

종자는 가을이 되어도 결실이 잘 되지 않으므로 종자 번식은 사실상 어렵다. 또 새로 자란 가지를 꺾꽂이 하여도 발근율(發根率)이 낮아 번식이 매우 어려워 포기나 누기를 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